

베트남 진출 기업 방문... 해외 진출 모색

우범기 전주시장, 비나텍 베트남 공장·삼성전자 하노이 R&D센터 방문... 지역 기업 해외 진출 적극 지원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5일 전주시 강소기업인 비나텍 박닌 공장과 글로벌기업인 삼성 R&D센터를 차례로 방문했다.

우 시장은 이번 방문은 베트남 진출 기업의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우 시장은 지역 강소기업인 비나텍 박닌 공장을 찾아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과 산업 육성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1999년 설립된 비나텍은 슈퍼캐시터와 수소연료전지 소재와 부품을 연구하고 제조하는 전문기업으로, 지난 2013년 코스닥에 상장된 후 2020년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등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 시장은 이어 글로벌기업인 삼성전자의 하노이 R&D센터를 방문해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2022년 설립된 삼성전자 하노이 R&D센터는 베트남에 진출한 글로벌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5일 전주시 강소기업인 비나텍 박닌 공장과 글로벌기업인 삼성 R&D센터를 차례로 방문했다.

기업 중 최초로 설립된 곳으로, 모바일 기기용 소프트웨어의 핵심기술인 △멀티미디어 정보 처리 △무선 통신 보안 분야 등에 특화된 글로벌 연구기지로 알려졌다.

이번 하노이 R&D센터 방문은 최주호 삼성베트남복합단지장의 초대로

성사됐으며, 우 시장은 이 자리에서 베트남 경제 및 삼성전자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전주시 기업의 해외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이번 베트남 진출 기업 방문을 통해 전주시와 베트남의

관계를 강화하고 향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우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경제사절단은 이번 베트남 출장의 첫 일정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하노이 무역관을 방문해 베트남 경제 현황을 청취하고, 전주시 기업의 진출 전략을 논의했다. 또, 베트남 현지에서 진출한 한인 경제인들을 초청해 기업 경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우수기업 8개사와 현지 바이어 30개사 대표가 만나는 수출상담회를 여는 등 지역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판로 개척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비나텍을 비롯한 작지만 강한 수출기업들이 강한 경제 전주를 이끌어가는 원동력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국내 대기업의 해외법인과 해외로 진출한 유관기관, 현지 외국기업 등과 긴밀한 글로벌 협업체계를 구축해 전주시민의 수출지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요술램프 요정 지니의 소원 들어주기 프로젝트 소원선물 전달식

요술램프 요정 지니 소원 들어주기

전주시설공단, 결손가정 어린이 16명에게 소원선물 전달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로 깜짝 변신했다.

공단은 '요술램프 요정 지니의 소원 들어주기 프로젝트'를 통해 결손가정 어린이 16명에게 소원선물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책가방과 장난감, 운동화와 보드게임, 텀블러 등 전달된 선물은 전주시 드림스타트 지원 대상인 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어 했던 것들이다.

공단은 전주시 드림스타트와 연계해 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이 무엇인지 직접 물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물건들을 일일이 구매했으며, 직접 포장까지 한 뒤 선물을 건넸다.

요술램프 요정 지니의 소원 들어주기 프로젝트는 화장지와 라면 등 생필품 위주의 나눔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결손가정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취지로

진행하는 공익 프로그램이다.

공단은 전주시 드림스타트를 비롯해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특히 공단 임직원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으로 행사를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공단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급여 끝전 폐기' 운동을 통해 매달 급여의 일정액을 기부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서비스를 총괄하는 감재화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공단 임직원의 기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프로젝트가 아이들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연상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연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우리 사회를 더 밝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다문화이주여성 지역사회 정착 돕는 행사 열려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전주·완주 거주 20여명 대상 진행

전주시와 완주군에 거주하는 다문화이주여성들이 한국 여성들과 마음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만남의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는 6일 일일산골 일원에서 전주·완주의 다문화 이주여성과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회장 황민정) 회원 등 40

여 명이 함께하는 '맘프렌드(Mom-Friend) 다문화 동행'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부안군에서 진행된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이주여성들이 낯선 환경에서 겪는 언어와 사회적 고립의 어려움을 덜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로 친구가 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이들은 먼저 일일 봉어시장 생태공원에서 환경 보호의 의미를 되새기는 '줍깅' 활동으로 첫 소통을 시작했다. 이어 119안전체험관에서 재난 상황을 체험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배웠고,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는 짬뽕과 함께

피자와 치즈 만들기 활동을 통해 마음을 나눴다. 특히 지난달 부안에서 처음 만난 참석자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경진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이들이 마음을 나누고 지지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발전 유공자 표창

진북동 장수마을 주민한마당축제위원회 김영숙 위원장 수여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남관우)가 제12회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6일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전북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시·군의회별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하고 있다.

전주에서는 덕진구 진북동 장수마을 주민한마당축제위원회 김영숙 위원장이 유공자로 선정돼 이날 시의회 의장실에서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김영숙 위원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 왔을 뿐만 아니라 전 진북동 주민자치 위원장으로서 진북동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관우 협의회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위상 제고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한 수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 전북자치도연합회, 해피나눔박스 기부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한병삼)는 6일,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 전북자치도연합회(회장 이남표)가 동절기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350만 원 상당의 해피나눔박스 50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는 사회의 취약계층들을 지원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로, 지난 20여 년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도움의 손길을 펼쳐왔다.

이남표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 전북자치도연합회 회장은 "동절기를 맞아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



도록 꾸준한 이웃사랑을 지속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기부받은 해피나눔박스에는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육개장, 장류, 갖가지, 라면 등 다양한 식료품이 포함되어 있다. /김욱기 기자

